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3~10/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철학자와함께읽는동화*동화인문학	이일야	담앤북스	6	춤추는스님원효대사(만화고승열전2)	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통도사승가대학의불교철학강의:서양철학교수가통도사에간까닭은	홍창성	운주사
3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9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5	사찰문화해설가이드북	강계 이지범	중도	10	보현행원품과마음공부	법상	민족사

책세상

삼보일배·오체투지, 다시 생각하다



길 위의 삼보일배, 길 위의 오체투지 전 2권

(사)세상과 함께 엮음 / 푸른역사 / 각 권 2만원

2003년 새만금사업 중지 삼보일배
2008~2009년 오체투지 기록물
"전쟁 · 기후위기 환경파괴 등으로
삼보일배 · 오체투지 필요한 시대"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2003년 새만금 삼보일배의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새만금이 묻히고 있습니다. 강이 더 큰 인공의 강-대운하-에 수몰된다 했습니다. 땅이 땅에 묻혀 숨 막혀 하고, 물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책 〈길 위의 삼보일배〉와 〈길 위의 오체투지〉는 2003년과 2008년 그리고 2009년을 소환한다. 모두의 글은 수경 스님이 2003년의 삼보일배와 2008~2009년의 오체투지를 회상한 것이다.

2003년 3월 28일 한국사에서 처음 보는 기도이자 순례가 시작됐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4대 종단의 성직자인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가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비폭력 저항이자 묵언의 대안 제시를 위한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삼보일배'는 65일 동안 서울 광화문까지 322km에 걸쳐 이어졌다.

그리고 2008년 9~11월과 2009년 3~6월에는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가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내걸고 124일 동안 날마다 천 배를 올리며 지리산 노고단에서 계룡산을 거쳐 임진각 망배단까지 355km를 오체투지로 이동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한국 사회의 무지와 위선과 기만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는 국책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무책임하게 이뤄졌던 정책 실패와 막대한 혈세 낭비의 악순환을 끊는 정책 대전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2003년 3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앞장서며 수많은 환경·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과 시민이 나서게 됐다. 이들 모두가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36개 환경종교시민 단체 참여)로 모였다. 삼보일배의 시작이었다.

두 권의 책은 위의 역사적 현장으로 기록된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에 대한 기록으로, 그 날의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순례가 사람과 환경, 생명 존중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책은 자벌레와 갯지렁이 등 땅 위의 작은 생명들과 눈을 맞추며 오체투지로 걸었던 이들이 길 위의 하루하루를 적어 놓은 것이다. '너는 나의 뿌리이며, 나 또한 너의 뿌리'라는 평등과 공동체 정신을 갖고 '나'부터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로 상생의 길을 걸었던 대중의 발자취이며, 모든 생명체 간의 용서와 공존을 기도하고, 지구와 인간 그리고 자연이 하나라는 큰 연민을 가졌던 열린 마음들, 생명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려 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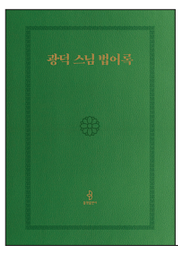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전쟁과 기후 위기, 환경 파괴로 다가올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년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사계절 경치를 직접 누리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저 글과 사진만으로 그 풍광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삼보일배'는 불가의 수행법으로, 걸음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욕을 응시하고 자신의 진심(분노·화)을 성찰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불가의 수행법이다. '오체투지'는 양 팔꿈치와 무릎, 이마를 땅에 대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더불어 살아가는 겸손을 배우며, 자기 안의 탐진치를 비우는 수행이다.

그 역사적 현장이 있은 후 삼보일배 오체투지는 불합리와 모순에 항거하는 대중의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비폭력은 무기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닌 힘'이며 불복종은 '불의에 대한 불복종'임을 일깨웠다. 또한 종교간의 화해와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했다. 새만금 삼보일배 당시 맨 앞에 섰던 수경 스님은 (사)세상과함께를 만들어 새만금 살리기에 함께하고 있으며,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제정해 환경보호 운동가들을 응원하고 있다.

전쟁과 기후 위기, 환경파괴로 미래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의 시간을 소환하는 두 권의 책은 '왜 지금?'이 아니라 '왜, 이제야'라는 물음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삼보일배와 오체투지가 시대를 걱정하는 '언어'가 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책 속의 진솔한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왜 지금?'이 아니라 '왜 이제야'인지 알게 된다.

'불광' 이름으로 대중·생활불교



광덕 스님 법어록

광덕 스님 편저

불광출판사 / 3만원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 법어록 발간
광덕 스님 사상 · 가르침 정수 담아
방대한 법문 엄선해 주제별 분류해
종교 교훈 넘어 인간존재 본질 탐구



광덕 스님 진영.

월간 〈불광〉 창간과 불광법회 창립, 그리고 잠실 불광사 창건은 한국불교사에서 의미가 큰 불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인공인 광덕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 속에 녹여내고자 했으며, 모든 사람을 '고귀한 빛'이자 무한한 불성을 지닌 생명으로 정의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절대 긍정이자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생각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신앙적 언어로 재해석되었으며, 모든 존재는 존엄하다는 광덕 사상의 뿌리가 됐다.

불광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광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법어록 〈광덕 스님 법어록〉이 출간됐다. 스님의 방대한 법문을 3년여에 걸쳐 엄선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한 권의 법어록으로 묶었다. 법어록에 담긴 지혜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이 본래 평등하고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무비 스님(범어사 한주)은 발간사에서 "한 줄기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자 시작된 불광의 여정이 어느덧 반백년이 되었습니다. 그 정진의 결실이 500여 페이지의 법어록으로 우리 앞에 나투었습니다. 당신의 장광설은 문자사리가 되었고, 수행법은 '마하반야바라밀법'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시대와 사람을 이어주고 부처와 중생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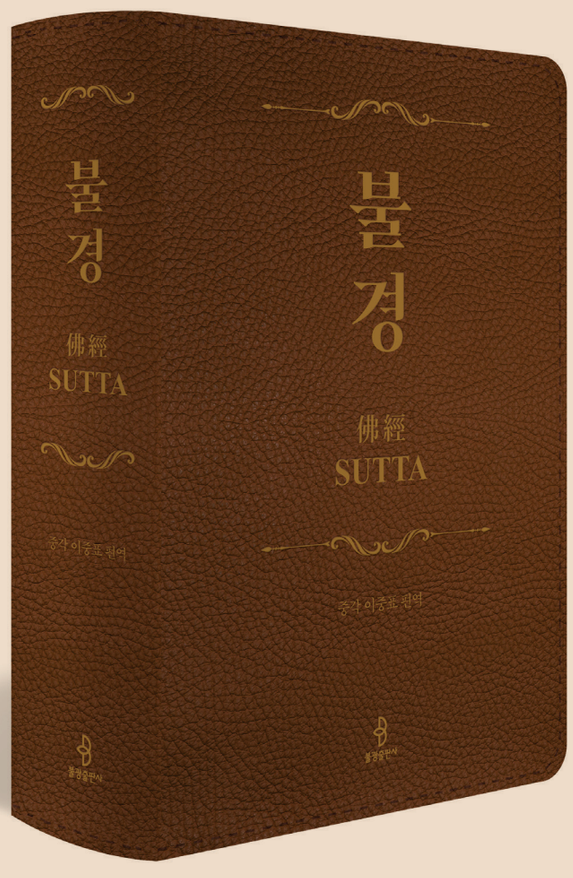
광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한 데 모아놓은 이번 법어록은 구도와 포교에 일생을 바친 스님의 치열한 삶이 남긴 귀중한 유산으로, 생명 존중 사상과 중생 구원의 실천을 돕는 지혜의 가르침들로서,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불성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법어록은 각 주제의 구절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늘 가까이 두고 수지독송하기에 좋으며, 바쁜 생활 속 짧은 시간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이성이 있다. 틈나는 대로 한 구절씩 읽어도 좋고, 어려운 문제와 마주했을 때 읽고 싶은 대목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법어록은 전체 5부로 만들었다. △제1부는 광덕 스님의 구도의 상징인 '불광 사상'편으로 '순수불교선언'과 '한마음 헌장'을 수록했다. △제2부는 '사상'편으로, 반야바라밀 사상과 보현행의 실천방법, 번뇌와 경계를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법 등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이 담겼다.

△제3부는 '생활'편으로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소개한다. 행복의 법칙, 소원성취와 운명극복, 고난을 다스리고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법, 경제활동의 의미, 건강과 죽음, 공동체와 사회생활, 기도와 수행 등을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제4부는 '사회'편으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5부는 현대 불교의례의 근간이 되는 서원과 발원문, 그리고 스님이 직접 작사한 찬불가로 구성했다.

박재완 기자



"기독교에 성경,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다면
불교에는 불경(佛經)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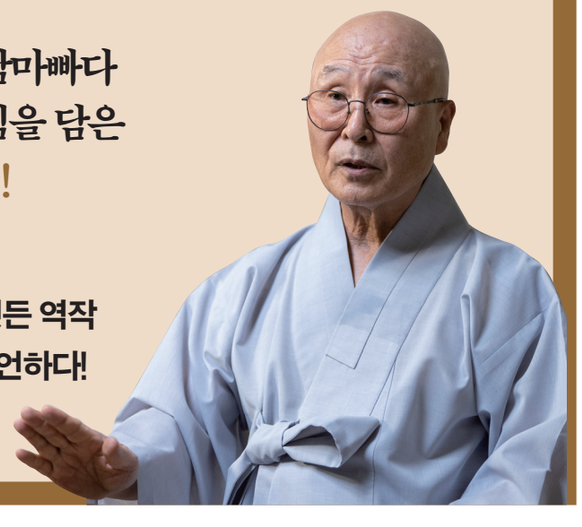
붓다의 가르침을 집약한 세계 최초의 한글 불경

율장, 니까야, 숫따니빠따, 담마빠다
석가모니 붓다의 실제 가르침을 담은
세계 불경의 결정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50년 염원이 깃든 역작
'불상(佛像)에서 불경으로', 불교 공부와 수행의 전환을 선언하다!

출간 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불경 佛經
중각 이중표 편역
1,448쪽 | 70,000원
가죽 양장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